

탈북학생의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 향상을 위한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

노은희*,오인수**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정책 고찰
- III. 탈북학생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별 개입전략
- IV. 논의 및 결론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다양한 심리적 외상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탈북학생들의 남한 사회 및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인 도구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 중 정서적 지지 이외에도 도구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이주민과 난민들이 새로운 이주 국가에 정착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은 난민과 이주민 관련 연구를 통해 밝혀진바 있다. 이주민과 난민 학생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탈북학생의 경우 역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 정부부처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탈북학생 관련 지원 서비스들이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차원에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심리·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탈북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도구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향상을 위한 개입 방안은 이들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입 전략은 탈북학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중복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탈북학생을 위한 지원들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탈북학생,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학교 적응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논문 및 저서 노은희·오인수. 2017. “남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탈북 청년의 취업 성공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4권 제4호, 235-264.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논문 및 저서 박슬기·오인수. 2011. “대안학교 출신 북한이탈청소년의 대학진학 진로결정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제12권 제5호, 1719-1735. 외 다수.

I. 서론

2017년 4월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38명이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은 226명으로 총 2,764명의 탈북학생들이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7). 학교 급별 탈북학생 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도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1,027명, 중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726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785명으로 그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17).

이렇게 탈북학생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백혜정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들 중 63.8%가 북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겪었다고 보고하였고, 다른 사람의 공개 처형이나 심한 고문 장면을 목격한 경우도 53%에 달했으며, 탈북 과정에서 심한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을 경험한 비율도 62.9%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탈북학생들은 탈북 과정과 제3국에서의 체류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외상 상황에 노출되고, 탈북학생의 90%가 학습결손 상태로 남한에 입국하기 때문에 탈북 과정부터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학교에서 적응하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박윤숙·윤인진, 2007). 탈북 과정에서의 외상 경험들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바로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 하고, 학습결손 상태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남한의 학생들과 경쟁하며 학교와 교육체제에 바로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학생들은 적응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정진경·정병호 외, 2004). 또한 성인 북한이탈주민들과 달리 탈북학생은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고, 북한에서의 영양결핍

으로 인해 남한 학생들 보다 작은 키와 다른 외모 등 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되고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성인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더욱 심리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님이 함께 탈북 한 경우는 남한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자녀의 학업적 성공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크다는 점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심양섭·김현주, 2015; 최명선·최태산·강지희, 2006; 최보영·김현아·최연우, 2013). 이처럼 탈북학생의 경우 학업 결손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도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탈북학생을 위한 대부분의 지원은 학업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탈북학생을 포함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도움도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 조영아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입국 후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가에게 한 번 이상의 서비스를 받아본 북한이탈주민 155명 중 15%만이 심리 상담사에게 앞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28%만이 심리상담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심리상담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보영 등(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인 현물의 형태가 아닌 상담과 같은 무형(無形)의 도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유물론적 시각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상담은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도움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상담은 불필요한 도움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영아·유시은(2006)의 연구결과에서도 북한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해

결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상담은 매우 생소하고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명히 정서적, 심리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무형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일반적인 상담으로는 개입이 효과적이지 않고, 만족도 역시 낮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조영아·김연희 외, 2009; 최보영·김현아 외, 2013), 북한이탈주민들의 독특한 요구에 기초한 맞춤형 상담 및 개입 방안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관련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 역시 필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남한 사회로의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논의를 위해 정부의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방식의 개입 방안이 아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개입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 통일부와 교육부 등의 정부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북 청소년 관련 지원 서비스들이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사업, 그리고 교육부에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제도, 교육복지사 제도들이 탈북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함께 연계될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주학생과 난민학생에게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을 개입방안의 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아무런 연고 없이 새롭게 이주해 온 사회에서 이주민과 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지지라는 것이 이주민과 난민 관련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 (Alayarian, 2007). 탈북학생의 경우도 이주 학생과 난민학생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의 관점을 탈북학생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담을 모호하고 불필요한 형태의 도움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탈북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 중 도구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향상을 위한 개입 방안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입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학생의 학교적응 향상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민과 난민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그 하위유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탈북학생과 관련된 지원 정책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정책 고찰

1. 탈북학생 현황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남한에 입국한 탈북학생의 현황을 출생지 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탈북학생의 연도별 증감 추이(2013년~2017년)

연도	구분	재학생수(명, %)			
		초	중	고	계
'13	북한 출생	532 (45.9%)	270 (56.5%)	380 (98.7%)	1,182 (58.5%)
	중국 등 제3국 출생	627 (54.1%)	208 (43.5%)	5 (1.3%)	840 (41.5%)
	계	1,159	478	385	2,022
'14	북한 출생	534 (47.3%)	313 (45.8%)	357 (96.2%)	1,204 (55.2%)
	중국 등 제3국 출생	594 (52.7%)	371 (54.2%)	14 (3.8%)	979 (44.9%)
	계	1,128	684	371	2,183
'15	북한 출생	541 (44.20%)	344 (41.7%)	341 (79.9%)	1,226 (49.5%)
	중국 등 제3국 출생	683 (55.8%)	480 (58.3%)	86 (20.1%)	1,249 (50.5%)
	계	1,224	824	427	2,475
'16	북한 출생	450 (39.4%)	359 (46.4%)	391 (65.1%)	1,200 (47.7%)
	중국 등 제3국 출생	693 (60.6%)	414 (53.6%)	210 (34.9%)	1,317 (52.3%)
	계	1,143	773	601	2,517
'17	북한 출생	361 (35.15%)	332 (45.7%)	408 (52.0%)	1,101 (43.4%)
	중국 등 제3국 출생	666 (64.8%)	394 (54.2%)	377 (48%)	1,437 (56.6%)
	계	1,027	726	785	2,538

출처 : 교육부 통계자료(2017년 4월 기준)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탈북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남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6).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탈북 이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의 수는 2017년 현재 666명으로 전체 탈북 초등학생의 절반을 넘는 64.8%였고, 중학생의 경우 394명으로 54.2%에 달했다(교육부, 2017). 이처럼 제 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남한 사회의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교육부의 경우는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또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탈북학생의 교육지원 사업 대상자에 그들 역시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한만걸·이강주 외, 2016), 교육적 차원의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형태의 지원에서는 소외되고 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욱 열악한 상황가운데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사회적 지지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Cobb, 1976) 사회적 지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Cohen and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는 크게 구조적 지지와 기능적 지지의 차원으로 나뉘는데, 구조적 지지는 지지의 출처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를 보는 관점

으로서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나뉜다. 먼저 공식적 네트워크는 어려운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회복지사나 상담교사 혹은 교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과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의미하고,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이와 달리 개인적인 접근에 해당하는 이웃이나 가족, 친척, 친구 등을 의미한다. 반면 기능적 지지는 구조적 지지와는 달리 지지의 내용적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로 구분된다(배진희, 2006). 사회적 지지 모델을 최초로 언급한 학자인 코헨(Cohen, 1983) 역시 생활 스트레스를 완충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기능적 측면에서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이러한 사회적 지지에 주목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경험을 한 이주민과 난민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일관되게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Alayarian, 2007; Kovacev and Shute, 2004; Simich and Beiser et al., 2003; Stewert and Anderson et al., 2008). 대표적으로 아라야리안(Alayarian, 2007)은 이주민과 난민의 관점에서 새로운 이주 국가의 사회적 지지는 생활 스트레스를 완충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주민과 난민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내용을 기능적 측면에서 3가지 하위 유형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의 경우 주로 사회적 지지의 출처와 주체에 따른 ‘구조적 지지’의 차원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주체들의 지지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에 반해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중 ‘기능적 지지’의 차원을 중심으로 한 개입 방안이 이주민과 난민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었다

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그들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 탈북학생을 위한 개입 방안을 기능적 지지 차원에서 모색해 봄으로써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를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난민과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지 :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난민과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 중 먼저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는 물질적 지지에 의한 것으로 예를 들면 재정적인 지지나 일상적인 과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는 생활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안내 혹은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과 충고와 같은 형태의 정보 제공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는 공감(empathy), 안심(reassurance), 돌봄(caring), 신뢰(trust)를 포함하는 정서표현과 같은 심리적 지지를 의미한다(Alayarian, 2007).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상담에서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특히 더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난민의 경우 가족 및 중요한 타인과의 사별뿐만 아니라 물질적 상실, 친구와의 이별, 전체적 사회망의 상실, 언어와 생활 방식의 상실 등 여러 가지 굴욕적 상실사건(humiliating loss events)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적응과 회복을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Alayarian, 2007). 아이젠브루흐(Eisenbruch, 1990)는 이주민과 난민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배경의 특징을 문화적 상실(cultural bereavement)로 봐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주민과 난민의 경우 이러한 문화적 상실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정신병리적이거나 보다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정상

적 반응'이라고 주장할 만큼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매우 크며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라야리안(Alayarian, 2007)은 이주민과 난민의 경우 다른 일반 내담자들보다 더 많은 도구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상실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유형의 지지가 이들과의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돕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진 사회적 자본이 무엇이고 어떠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개별적 특성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Alayarian, 2007).

2) 탈북학생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

탈북학생들 역시 이주민과 난민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인 도구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남한 사회의 적응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이탈주민 내담자를 상담해온 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상담은 일반적인 상담과는 차별화된 방법과 접근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조영아·방기연 2010; 최보영·김현아 외, 2013).

먼저 조영아·방기연(2010)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정보 제공, 남한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설명,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충고, 북한이탈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의 연계 등 일반적인 상담에서 진행되는 내용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상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할 때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 중 정서적 지지 뿐만 아니라 도구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조영아·방기연(2010)은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의 역할이 곤슬레이브(Gonslave, 1992)가 제시한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상담자의 역할과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상담 이외에 교사, 자원전문가, 안내자, 위기 중재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포함한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상담 할 때 일반적인 상담의 형태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고, 유형(有形)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주찬(2016) 역시 북한출신 내담자를 상담할 때 탈북 및 정착에 관련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고, 의료상담, 교육상담, 진로상담, 주거상담, 가정생활상담, 법률상담 등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 정착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병욱(2011)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문 상담을 일반적인 정서 및 심리를 다루는 심리성격의 상담과 남한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정보제공 성격의 상담으로 나누어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김성희·김현아(2005)는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560명을 대상으로 상담에 대한 요구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상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중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던 것이 남한 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획득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호소문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진

로문제와 거주지 배정, 브로커 비용 등 정착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김성희·김현아(2005)는 심리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현실적 문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원조하는 포괄적 상담 서비스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상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전문적 조력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북한이탈주민의 상담 관련 선행 연구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담에 대한 요구는 일반 내담자와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자가 강조하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인 도구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및 정서적 지지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상담에서도 중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최근에 남북하나재단에서 발행한 2016년 탈북 청소년 실태 조사의 내용에서도 탈북학생들에게 향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학습 및 학업 지원’이 6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이 63.3%였으며, ‘진로 상담 지원’이 36.3%, ‘의료지원’이 8.3%로 그 뒤를 따랐다(남북하나재단, 2016). 이러한 결과를 통해 탈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은 학업적 지원, 경제적 지원, 상담 지원, 의료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이었고 이러한 지원은 위에서 제시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들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상담에서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이 탈북학생 역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수준에서 그칠 뿐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학생을 위한 개입 방

안을 세 가지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 탈북학생의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정책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탈북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탈북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지원 정책과 그 한계점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한의 맥락과 상황에 입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입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들의 탈북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탈북학생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크게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3개의 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적응과 관련된 사업은 통일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통일부의 경우 입국 직후 하나원에서 12주간의 남한 사회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 탈북 청소년들은 하나원 소속 예비학교인 하나둘 학교에서 일반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준비 교육을 받는다. 또한 교육부와 연계하여 초등학생의 연령에 해당하는 탈북학생의 경우는 삼죽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생은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통해 남한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나원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적응 교육을 위해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센터에서 4주 동안 80시간의 지역사회 이해, 진학지도, 건강증진, 취업, 경제 교육을 제공 받고 하나센터와 전문상담사, 정착 도우미 등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장학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인터넷 영어 화상교육 지원, 탈북 아동과 초등학생의 학습지 지원, 대안학교 지원, 방과 후 공부방 지원, 탈북학생 예비대학 운영, 탈북 청소년 대학 입시 박람회 개최, 진로 진학 상담 및 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통일부, 2015). 이러한 통일부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의 다양한 지원제도 중 탈북학생의 정서 및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를 들 수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는 교육, 복지, 의료 및 취업지원 등 전문적인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길은배, 2015).

하지만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의 경우 전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심리 상담관련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을 위해 특화된 전문 상담을 제공하기에는 상담 전문성이 떨어지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최보영·김현아 외, 2013). 또한 2010년부터 2016년 3월 선발된 162명의 전문상담사 가운데 14.8%에 해당하는 24명의 전문상담사는 상담관련 활동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포커스경제, 2016/10/14).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과 남한 입국 후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는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유시은·배형준 외, 2013), 상담전문성이 높은 상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담전문성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이 제도를 통한 상담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통일부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선 북한이탈주민들이 갖고 있는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도움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교육부의 경우는 주로 북한에서의 학력인정과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교육부는 교육개발원 내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를 두고 다양한 탈북 청소년 관련 교육 지원 정책을 위한 연구와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과 함께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탈북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 사업은 탈북학생이 밀집한 학교와 지역에 전담 인력을 파견하여 돕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북한의 교사출신 북한이탈주민을 교육시켜서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로 파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제고의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을 취한다.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는 탈북학생의 기초학습을 지도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학부모 상담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탈북학생을 위한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길은배, 2015). 2016년도에는 20개의 탈북학생 집중학교에 20명의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였고, 2017년도부터는 21개의 집중학교에 21명의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14년도에 전국의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성희(2014)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들은 일반 교사와 탈북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지도 부분과 전문적 상담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탈북학생들은 적응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는 탈북학생을 위한 상담업무도 함께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교육과 전문적인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

한 것이 사실이다.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는 전문적인 상담 관련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주어야 하는 필요들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부분은 상담영역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과 업무분석에 기초하여 역할규정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2006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통해서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방문교육과 방과 후 교육, 비교 문화 체험 등의 정착초기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최보영·김현아 외, 2013). 또한 초기 정착 이후에도 비교적 지속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 정착 사업으로 생활 및 교육정보 안내, 온오프라인 상담, 학습 멘토링, 통합 캠프, 인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길은배, 2015).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각 부처에서는 탈북학생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해 많은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서 및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적 지원은 사실 부족한 실정이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김병욱, 2011; 최보영·김현아 외, 2013). 또한 최명선 등(2006)은 탈북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담을 실시할 때 탈북학생이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와의 연계와 매체를 활용한 상담이 필요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심양섭·김현주(2015)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탈북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의 경우 정부부처와 지원기관 간에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속히 개

선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제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탈북학생들의 경우는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 역시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성희·김현아, 2005). 상담의 효과는 상담을 받으려는 동기와 상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결정적인 점을 감안하면(Miller and Duncan et al., 1996), 탈북학생에 대한 상담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과정에서의 다양한 외상경험, 남한 사회 적응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탈북학생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전략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정부부처의 지원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탈북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에 따른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현재 탈북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탈북학생 지원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별로 나누어서 분석해보고 이러한 지원들이 어떻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적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Ⅲ. 탈북학생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별 개입전략

1. 도구적 지지를 활용한 개입방안

도구적 지지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직접 도와주는 행위로서 현물, 현금, 노동력, 시간, 환경의 개선 등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김희수, 2010). 대부분의 탈북학생들은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학령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남한에 입국하고 있기 때문에(이현심·박주현 외, 2011), 일상적 과제에 대한 직접적 도움을 주는 도구적 지지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학생들의 학습지원일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탈북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로 ‘학교수업을 따라가기(48.5%)’를 꼽았고, 향후 가장 필요한 지원도 ‘학습 및 학업 지원(65.5%)’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또한 탈북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이 학습문제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바 있다(김미숙, 2005; 원자혜, 2012; 한만길·윤종혁 외, 2009; 한만길·이강주 외, 2013).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현재 탈북학생을 위한 대부분의 지원이 학업 결손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혜 학생에게는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완하여 이들의 학업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한다.

탈북학생들을 위한 지원정책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제도적으로 장학금과 학업장려금 이외에 직접적으로 탈북학생의 학교에서의 학습 지원을 위해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들은 담당 탈북학생의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를 통해 맞춤형 학습지도 계획안을 작성하고 계획안에 따른 교육 실행을 위해 탈북학생을 위한 일대일 방문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2014년도에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던 전국의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성희(2014)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는 특히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는 북한에서 교사였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한 후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영어와 사회 교과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 역시 영어와 사회 교과를 배운 경험이 전무하고, 역사과목도 왜곡된 내용을 배워왔기 때문에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는 영어와 사회, 역사과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탈북학생들 역시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영어와 사회, 역사 과목이었고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에게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성희, 2014). 탈북학생에게 어려운 과목의 경우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 역시 교과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에 대한 학습지도가 효과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전문적으로 탈북학생들의 학습지도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들에게 학습지도의 역할이 주로 부여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의 학습과 관련된 사항은 담임교사와 학습부진아 지도 교사 혹은 방과 후 교사가 협력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교사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탈북 대학생들 중 탈북학생의 학습지도를 도울 수 있는 학생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탈북 대학생들에게 탈북학생의 학습을 지도하게 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해준다면 이들의 장학금 지원과 탈북

학생의 학습지도 및 정서적 지지의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탈북 대학생 중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남한의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간 경우가 있고,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아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중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아서 바로 대학에 들어간 탈북 대학생의 경우는 남한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남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탈북 대학생들이 탈북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탈북 대학생의 경우 누구보다도 탈북학생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탈북학생이 학습을 할 때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탈북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방법을 지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이 탈북학생들에게는 롤모델이 될 수 있어서 탈북학생들의 정서적 지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탈북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의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이 대부분인데, 성적이 우수한 몇몇 탈북 대학생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장학금을 중복수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탈북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서울경제, 2016/10/8). 따라서 탈북 대학생들에게 성적 이외에 탈북학생들을 위한 학습지도와 같은 봉사활동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 장학금 지급 기준의 다각화를 통해 탈북학생과 탈북 대학생 모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남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탈북 대학생들 중에 장학금이 필요한 경우 자신이 속한 지역의 탈북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해주고 지도한 시간에 비례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습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남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탈북 대학생도 함께 멘토로 포함시켜서 탈북학생들에게 학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습 및 학업지원 다음으로 향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탈북학생들이 선택한 항목은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63.3%)’이었다. 또한 ‘의료지원(8.2%)’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도구적 지지 중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나 의료지원 또는 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이미 지역사회 자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교에 상주하는 교육복지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교육복지사는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 서비스들이 잘 제공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라는 특화된 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탈북학생을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혜(2012)는 탈북학생들이 서울, 경기지역 이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이 지역 아동센터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탈북학생의 학습지도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한 바 있다. 인천시 교육청의 사례처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탈북학생들에게 도구적 지지와 관련된 도움을 주는 방안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는 남북하나재단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및 탈북학생을 위해 특화된 복지 서비스에 대해 교육복지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따라서 탈북학생만을 위한 특화된 지원 정보의 경우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관련사항을 교육복지사에게 전달해주면 교육복지사가 탈북학생 지원 기관과 탈북학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탈북학생전담코

디네이터가 탈북학생이 받을 수 있는 특화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교육복지사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복지사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복지 관련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합하여 목록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목록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교육복지사는 해당 탈북학생과 지원 기관들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돕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탈북학생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탈북학생이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 달에 한번 혹은 필요에 따라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와 교육복지사는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사례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의 경우 일반적인 학습지원 이외에도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교육부, 2014). 이를 위해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의 경우 중국어 가능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어에 서툰 중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 다문화 관련 이중 언어 강사나 한국어 강사가 배치되어 있다면 그러한 강사들과의 연계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인 무지개청소년센터는 탈북학생과 다문화 학생 그리고 중도 입국 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 포함)까지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과 학습지원, 그리고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제3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어에 서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경우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인보우스쿨(중도입국청소년 초기지원 학교)과 연계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한국어 교육, 사회적 관계 향상 및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2. 정보적 지지를 활용한 개입방안

정보적 지지란 개인 혹은 환경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주거나 조언과 제안 충고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희수, 2010). 남한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남한 땅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길은배·문성호, 2003; 박운숙, 2006; 백혜정·길은배 외, 2006; 이기영, 2002).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지원들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정보를 얻더라도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여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먼저 남한에 입국하여 정부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이러한 정보적 지지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일반 교사와 탈북학생 및 학부모들은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들의 전문가적 역량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성희, 2014),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선 학습지도와 학교 적응 관련 상담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에게는 앞의 도구적 지지를 활용한 지원방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탈북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에 대한 안내와 정착 초기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주요 업무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다양한 매뉴얼과 정보들을 잘 숙지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부부처와 민간단체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들을 홈페이지 상에 업로드 해놓거나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지만,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책자를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은 먼저 남한 사회에 정착한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방법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먼저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인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숙지해 두었다가 탈북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관련 정보들을 잘 전달해 준다면 탈북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들 역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탈북학생과 부모들은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해 동일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의 정보 격차도 점차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자신의 입국 초기 경험을 살려서 각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집으로 방문하여 설명해주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알려준다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개발된 많은 지원 정보와 대응 매뉴얼들이 사장되지 않고 개발 목적대로 이들을 돕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이러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이나 서비스가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변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보수교육 때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들이 새로

운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탈북학생 이해 교육 프로그램 역시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의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탈북 청소년들은 국가로부터 거주지를 배정받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탈북 청소년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다. 탈북 청소년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학교에는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해 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탈북학생을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반학생들에게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여 탈북학생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줄이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 다문화 중점학교를 선정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문화 이해 교육에서 언급되는 대상은 주로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교육부, 2017), 여기에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부분도 추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재와 매뉴얼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감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이 직접 학교에 상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탈북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를 만나면 낙인 문제로 인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경·김현아, 2009; 조영아·방기연, 2010). 이성희(2014)의 연구에서도 대다수의 탈북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다가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현행처럼 학교에 배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는 가정 방문 및 탈북 가족 밀착형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이 반복되면서 가정 내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진섭, 2004; 최명선·최태산 외, 2006). 또한 탈북학생의 부모 역시 탈북 과정에서의 외상 경험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서비스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아직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미성년자인 탈북학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와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탈북학생의 부모에게도 학생에게 제공하는 정보적, 도구적,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가정 방문형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면 이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가정 전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방문형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실제로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도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상대적으로 가족 외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북한 이탈주민의 특성상 가정방문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초반 부에 해당 탈북학생과 그 가족들이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해서 신뢰관계 형성을 먼저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신뢰관계에 기반 하여 서비스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탈북학생과 해당 가정에 배정된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자주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탈북학

생전담코디네이터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역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정서적 지지 향상을 위한 개입방안

정서적 지지의 경우 또래 남한 학생들과의 유대감을 통한 정서적 지지도 필수적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개입의 주체를 탈북학생 관련 정부부처 혹은 공식적 행위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탈북학생을 만나는 모든 전문가들이 탈북학생들의 정서적 지지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탈북학생의 정서 및 심리 상태와 외상 정도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Wee클래스(학교 상담실)와 Wee센터(교육청 단위의 상담센터) 종사자,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 마음건강(정신건강) 자문의사 및 심리치료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심리적 외상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정서적 문제가 없는 탈북학생의 경우는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학교 내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와 Wee 클래스 담당자, 그리고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에 의한 적응 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인 적응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정서적 외상 정도가 심한 고위험군 탈북학생의 경우는 교내 및 교외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내에 상주하는 상담 및 지원 인력으로는 이들의 심각한 정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외상사건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위험군 탈북학생의 경우는 교외의 심리치료 전문가와 마음건강 자문의사들로부터 더욱 심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선별된 학생의 경우 심층임상평가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해 Wee 센터를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으로 연계하여 심층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6).

이처럼 탈북학생들 중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선별된 경우 위에서 제시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선별되지는 않았지만 학교 적응이나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이 발견된 경우, 그리고 전문 기관 연계 중에 부모의 연계 거부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중도 탈락 되거나 학교 적응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경우는 2016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통해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오인수·홍현주 외, 2017). 정신건강 전문요원 2인 1조가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 학생의 심층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의 주도의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학생별로 개입전략을 수립하며 학생에게 적합한 지역 내 치료기관과 상담기관에 연계하고 복지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 학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탈북학생들에게도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범 사업이 지속될지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방문형 서비스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보다 더 확대된다면 고위험군 탈북학생들 역시 학교를 통해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들의 정서적 지지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탈북학생들은 남한 사회와 학교에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위험군 탈북학생의 상담을 위해서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사 양성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전문상담사로는 남북하나재단이 선발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전문상담사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정착지원과 복지관련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어 탈북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심리 상담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62명의 전문 상담사 가운데 14.8%에 해당하는 24명의 전문상담사는 상담관련 활동 경력이 전혀 없었다. 이들과 관련한 자격요건과 실제 수행 업무를 살펴보면 이들의 역할은 사회복지사에 가깝고 심리상담 전문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탈북 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그 어떤 집단보다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한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최명산·최태산 외, 2006). 현행 전문 상담사 제도를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상담에 대한 치료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보영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탈북 청소년 현장 전문가들의 경우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깊지만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일반 상담전문가는 상담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탈북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탈북 청소년으로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혹은 상담의 전문성 중 한 쪽에 치우치게 되면 탈북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보영 등(2013)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적 개입 방안을 잘 알고 있는 탈북 청소년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다수의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상담을 해본 경험이 있는 탈북 청소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적인 상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상담수련 과정을 통해 탈북 청소년 상담 전문가로 양성하여 탈북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차원의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4. 사회적 지지를 활용한 전문가 개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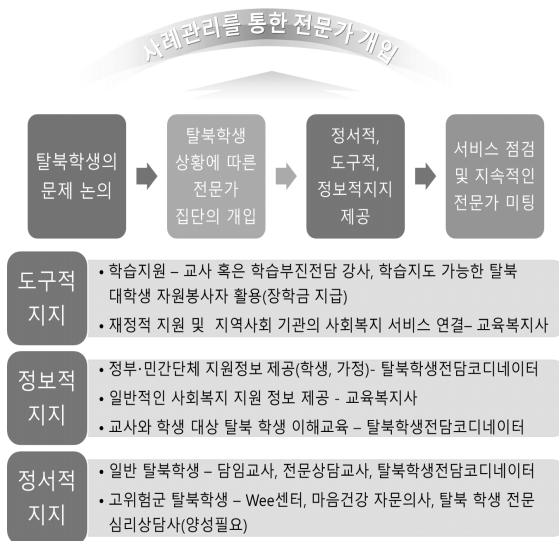
위에서 제시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별 서비스를 탈북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전에 교육복지사와 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 먼저 함께 만나서 탈북학생의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탈북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에 대해 논의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탈북학생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별로 각자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사가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는 가정 방문을 통해 탈북학생의 가정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전문가 미팅 때 공유함으로써 탈북학생에게 필요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탈북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탈북학생 집중학교의 경우는 탈북학생이 학교에 배정되면 제일 먼저 관련 전문가 미팅을 통해 해당 탈북학생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출생과 제3국 출생 등 출생지에 따라 그리고 북한 및 제3국에서의 교육경험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탈북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탈북학생’이라는 하나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교육부, 2016), 이들의 특성에 따른 효과

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탈북학생의 학업·정서·경제·가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학생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 미팅을 통해 학생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파악한 후에 탈북학생의 적응을 위해 전문가들이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에 따라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해나가고 정기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정보적, 정서적, 도구적 지지 중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전문가 미팅을 통해 다시 해당학생의 문제를 사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재점검 해나간다면 탈북학생의 체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지게 될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탈북학생의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에 따른 개입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탈북학생의 남한 사회 및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에 따른 개입방안



IV. 논의 및 결론

탈북학생은 탈북 과정과 제3국 체류 과정에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국 후 적절한 치료와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탈북학생들은 학습결손 상태에서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고, 북한에서의 학습결손이 심각하지 않은 탈북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특성상 남한 사회와 학교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박윤숙·윤인진, 2007).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학교 안팎에서 경험하게 되는 탈북학생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도움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입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들을 이주민과 난민학생의 특성에 동시에 갖고 있는 탈북학생을 위한 개입 방안의 틀로 활용하여 구체적인 개입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와 통일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탈북학생의 남한 사회 적응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정책들과,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복지사 제도, 그리고 심리·상담관련 제도들이 탈북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고 또한 서로 연계될 수 있을지 고찰하였다.

심리·정서적 문제와 학업과 관련된 격차 문제, 그리고 문화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여러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되는 탈북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구체적인 지원들이 절실하다. 현재 탈북학생을 돕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탈북학생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탈북학생들에게 필요한 도구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그리고 정서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입전략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때 탈북학생의 남한 사회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은 보다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탈북학생의 심리와 정서를 전문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탈북학생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사의 부재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일 것이다. 그 어떤 집단보다도 전문 심리상담사의 도움이 절실한 탈북학생들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대해 잘 알면서 청소년으로서의 탈북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탈북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 심리 상담사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이고 개념적 차원에서 개입 방안을 도출한 연구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탈북학생들에게 도구적·정보적·정서적 지지 방법 중 어떠한 형태의 지원 방식을 더 선호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양적 연구 혹은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에 기초한 재원 분배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탈북학생을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효과적으로 탈북학생을 돕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해보는 연구 역시 필요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부 부처의 지원 정책은 재화의 부족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부처의 지원 이외의 다양한 민간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탈북학생을 돕기 위해 투입되고 있는 다양한 부처의 재원들이 중복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효과

적으로 탈북학생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이들은 보다 쉽게 남한 사회와 학교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된다면 언젠가는 오게 될 통일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많은 북한학생들 역시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 접수: 10월 10일 ■ 심사: 11월 2일 ■ 채택: 11월 13일

참 고 문 헌

- 교육부·인천시교육청. 2014. 『탈북중학생 진로·직업교육 매뉴얼』.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16.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서울: 교육부.
- _____. 2017.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서울: 교육부.
- 길은배·문성호.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길은배. 2015. “공공부문 지원정책에 기초한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 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 복지연구』. 제17권 제4호, 217-237.
- 김미숙. 2005.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병욱. 2011.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 34-71.
- 김성희·김현아. 2005. “새터민의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도움요청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6권 제3호, 693-712
- 김영경·김현아. 2009. “새터민 동료상담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권 제4호, 981-1009.
- 김주찬. 2016. “탈북민 전문상담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퍼비전 연구.” 『연세상담교칭연구』. 제6권, 33-55.
- 김진섭. 2004. “탈북아동의 남한사회에서의 초기 적응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수. 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 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북하나재단. 2016. 『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박윤숙·윤인진. 2007.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41권 제1호, 124-155.
- 박윤숙. 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진희. 2006.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2007. “남한 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준비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46집, 183-211.

- 오인수·홍현주·강운형·임이랑. 2017.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방문 지원 서비스의 효과성 분석.” 『교육문제연구』. 제30권 제3호, 227-258.
- 유시은·배형준·조명숙·김경희·최영실. 2013. 『탈북대학생 중도탈락 원인 및 대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1호, 175-224.
- 이성희. 2014.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에 관한 사례연구.”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심·박주현·최덕경. 2011.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4호, 309-342.
- 원자혜. 2012. “탈북학생의 실태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요인.”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4.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제16권 제2호, 209-239.
- 조영아·김연희·유시은. 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권 제1호, 329-348.
- 조영아·유시은. 2006.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과 개입전략.” 『통일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53-77.
- 조영아·방기연. 2010. “상담자의 탈북주민 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인간이해』. 제31권 제1호, 1-28.
- 최명선·최태산·강지희. 2006. “탈북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놀이치료 연구』. 제9권 제3호, 23-34.
- 최보영·김현아·최연우. 2013. “탈북청소년 현장전문가가 인식하는 탈북청소년 상담 개입 방안.” 『청소년상담연구』. 제21호 제2권, 497-525.
- 심양섭·김현주. 2015. “탈북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북한학보』. 제40권 제1호, 36-66.
- 통일부. 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정착지원과.
- 통계청.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서울: 통계청
- 한만길·윤종혁·이향규·김일혁·이관형. 2009. 『탈북학생 학업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이강주·강구섭·김현철. 2016. 『탈북학생 지도 교사용 매뉴얼: 함께 만들어야 하나된 세상』.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Alayarian, A. 2007. "Resilience, Suffering, and Creativity: The work of the Refugee Centre." London: Karnac Books. 김현아 외(역). 2011. 『난민치료센터상담중심의 트라우마 회복탄력성과 상담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 38, 300-314.
- Cohen, S, and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3, 99-125.
- Eisenbruch, M. 1990.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o cultural bereavement: diagnosis of southeast Asian refuge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33, 673-680.
- Gonsalves, C. J. 1992. "Psychological stages of the refugee process: a model for therapeutic intervention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Vol. 23 No. 5, 382-389.
- Kovacev, L. and Shute, R. 2004.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 refugees resettled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8. No. 3, 259-267.
- Miller, S. D., Duncan, B. L., and Hubble, M. A. 1997. "Escape from Babel: Toward a unifying language for psychotherapy practice." 김희정 외(역). 2009. 『유능한 상담자의 심리치료:내담자에게 집중하라』. 서울: 학지사.
- Simich, L., Beiser, M. and Mawani, F. 2003. "Social support and the Significance of Shared Experience in Refugee Migration and Resettlement."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Vol. 25 No. 7, 872-891.
- Stewart, M., Anderson, J., Beiser, M., Mwakarimba, E., Neufeld, A., Simich, L. and Spitzer, D. 2008. "Multicultural Meanings of Social Support among Immigrants and Refugees." *International Migration*. Vol. 46 No. 3, 123-159.
- 서울경제. 2016. "헬조선 탈북민 청춘은 더 아프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L2M35II0Y> (2016/10/8)
- 포커스경제. 201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제도 허술해." <http://www.gungsire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2>. (2016/10/14)

ABSTRACT

**A study on interventions for enhancing
school and society adjustment in South
Korea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s**

Ro, Eun-hee

(Doctoral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Oh, In-soo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pecific interventions for facilitating school adjustment of North Korean students who had been exposed to psychological traumatic events in terms of subtypes of social supports; instrument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Previous studies investigating adjustment of immigrants and refugees have shown that all three subtypes of social supports (e.g., instrumental supports, informational supports, and emotional supports) are crucial factors in facilitating adjustment of immigrants and refugees to their new countries. Since North Korea students exhibit both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and refugee, it is assumed that they also need to get enough social supports. Therefore, we sought to provide effective interventions for enhancing their adjustments. It is postulated that effective interventions should include all the three subtypes of social supports. Thus, in addition to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instrumental and informational supports will function effectively in terms of giving concrete and practical assistances for North Korean students to resolve various

problems. The intervention strategies proposed in this study will provide North Korean students with personalized intervention, thereby facilitating their adjustment to schools and Korean society.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 Youths, emotion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school adjustment,